

# PUBLIC ART

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WWW.ARTINPOST.CO.KR MAY 2015



세계비엔날레 속 한국작가 60

## 60 korean artists in the biennales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콘텐츠잡지 2015

9 771975 643707  
ISSN 1975-6437  
05

104  
201505





Yang Haegue <Approaching: Choreography Engineered in Never-Past Tense> 2012 Motorized aluminum Venetian blinds, aluminum hanging structure, cable, module box, DMX recorder Dimensions variable Installation view of DOCUMENTA (13), Kassel, Germany, 2012

### special feature III

#### “메타-비엔날레, 비엔날레의 재구성”

• 편집부

이 특집은 2014부산비엔날레 특별전 <비엔날레 아카이브> 주제로부터 비롯됐다. 전시로 마련된 콘텐츠에 최근 데이터를 덧붙이고 본지 형식으로 바꿔 만들었는데, 곧 선보일 현대미술계 최고 행사인 베니스 비엔날레에 앞서, 세계비엔날레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작가들을 종합해보자는 의도에서다.

“한국현대미술 비엔날레진출사 50년”이란 부제를 단 <비엔날레 아카이브>전의 기획자 이건수는 “전시는 우리의 작가들이 최초로 참가했던 1961년 <파리청년작가비엔날레> 이후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현대미술이 비엔날레라는 국제적 전시시스템과 어떤 상호연관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일괄하고, 지금 이 시대의 비엔날레가 지닌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비엔날레에 대한 비엔날레”, 비엔날레 자체를 성찰하는 ‘메타전시’ 적인 비엔날레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우리 특집은 ‘메타’ 보다는 ‘팩트’에 포커스를 뒀다. 세계적 비엔날레에 초대돼 한국현대미술을 알린 60인의 약력과 각 행사에서의 이슈를 스트레이트하게 풀고, 이를 국외 미술인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 영문 번역을 함께 게재했다. 어떤 작가가 무슨 비엔날레에서 활약했는지 그 당시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획은, “한 작가의 삶과 예술은 자신이 몸 담았던 동시대 예술의 진화과정을 담고 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비엔날레의 전시장 속엔 비엔날레라고 하는 전시시스템의 역사, 혹은 비엔날레를 통해 오갔던 현대미술의 담론들이 깊이 서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엔날레는 하나의 책이고, 우리는 그 책갈피들을 넘기면서 세계의 구조들이 써내려간 스토리와 플롯을 체감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비엔날

레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비엔날레를 독해하는 일은 하나의 작품 속에 응결된 작가정신 너머의 세계정신을 만나는 것”이란 말마따나 미술로 대변된 동시대 철학과 이념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이건수가 “서구화의 초입에서 난무하는 이방의 문법을 극복하고 고유의 조형언어를 획득해나간 1950년대 현대미술 1세대 작가들로부터, 아카데미즘의 구체제에 맞서 자유로운 추상의 세계를 토착화시킨 1960년대 작가들, 소그룹운동과 실험미술을 통해 미술의 영토를 넓힌 1970년대 작가들, 거대담론과 소담론의 경계에서 번민하며 내용적 성찰에 몰입했던 1980년대 작가들, 국제적인 보편성을 획득하며 세계 무대에 활발하게 진출했던 1990년대 작가들, 매체적 혁신과 함께 거대한 시장논리에 맞서 순수성을 지켜간 2000년대 작가들까지, 그들의 비엔날레 진출사는 바로 한국현대미술의 변천사이기도 한 전시”라고 설명한 <비엔날레 아카이브>전은 매우 유의미했고 실제로 국내 미술인들에게 상당히 회자됐다. 전시에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인터뷰 영상도 있었는데, 종이 잡지인 관계로 이번 특집엔 그런 요소가 배제돼 아쉽다.

한국 작가들이 최초로 참가했던 해외 비엔날레는 1958년 <제5회 국제현대색채석판화비엔날레>이지만 미술의 전 영역을 다루는 비엔날레로서 1961년 <파리청년작가비엔날레>를 시점으로 삼은 <비엔날레 아카이브>처럼 이 특집 역시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현대미술이 비엔날레라는 국제적 전시시스템과 어떤 상호연관 속에서 성장해 왔는지 일괄하고, 지금 이 시대의 비엔날레가 지닌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